

인쇄현장 환경개선 1천만원까지 무상 지원

열악한 인쇄환경을 비용을 들이지 않고 쾌적한 근무 환경으로 바꿀 수는 없을까. 여기 50인 미만 소규모 사업장을 대상으로 작업환경 개선을 목적으로 한 사업장에 대해 1천만원까지 무상으로 지원하는 제도가 있다. 이른바 '클린 3D사업'.

클린 3D사업은 노동부가 50인 미만 소규모 사업장의 열악한 작업환경을 개선해 쾌적한 근무환경을 제공하기 위한 일환으로 올 연말까지 실시하고 있다. 시설과 공정 개선을 통해 위험 요인(Danger)과 유해 환경(Dirtiness), 힘든 작업(Difficulty)으로 얼룩진 영세 업체를 '건강한 일터'로 탈바꿈시키겠다는 야심찬 사업이다.

2002년 말까지 계속되는 이번 사업은 근로자 50인 미만 제조업 등 17만개소를 안전하고 건강한 일터로 만들기 위해 총 7백62억원의 산재예방기금이 투입된다.

클린3D사업의 목적은 소규모 사업장의 산재예방을 줄이기 위해서다. 50인 미만 사업장의 재해율이 전체 재해율의 두배 이상 달하고 있다. 이에 열악한 근무환경으로 인한 산업재해 발생률은 인력난으로 이어지고 있다.

근로자들이 취업을 기피하기 때문이다. 현재 인력난이 심각한 인쇄업계가 쾌적한 근무환경으로 개선된다면 인쇄업계의 인식이 많이 제고될 것으로 보인다.

■ 클린3D 사업이란

50인 미만 소규모 사업장이 위험기계·기구·설비와 고열·분진·소음 등 유해·위험요인과 힘들고 불편한 작업으로 산업재해와 직업병이 다발하고 있고 이로 인해 근로자가 취업을 기피하여 구인난까지 겪고 있다.

따라서 'CLEAN 3D' 사업은 50인 미만 소규모 사업장의 산업재해, 열악한 작업환경 및 불편한 작업의 원인이 되는 3D요인을 개선하기 위한 사업이다.

이 사업의 목표는 50인 미만 제조·건설 사업장 17만개소를 노·사가 필요로 하는 맞춤형 시설개선 및 기술지원을 통해 3D없는 안전하고 건강한 일터로 조성하는 한편 근로자를 산업재해와 직업병의 위협으로부터 보호하고 사업주에게는 기능인력보호와 구인난을 동시에 해결한다는 방침이다.

■ 지원 내용

지원사항은 크게 무료시설개선 지원사업, 안전보건관리기술 지원사업, 건강도우미 운영 등이다.

무료시설개선 지원사업은 업체당 1천만원 한도내에서 3D요인 개선을 위한 위험제거, 청결유지, 공정개선 등에 필요한 시설을 무료로 설치 또는 교체해준다.

안전보건관리기술지원 사업은 산업재해 및 직업병이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가능성이 높은 사업장, 작업환경측정결과 노출기준을 초과한 사업장 등을 대상으로 재해 및 직업병 예방과 작업환경 개선을 위하여 필요한 안전



◆ 노동부는 50인 미만 소규모 사업장을 대상으로 작업환경 개선을 위해 한 사업장에 대해 1천만원까지 무상으로 지원하는 '클린 3D사업'을 올 연말까지 실시할 예정이다.

보건관리 기술을 지도해 주는 사업이다.

사업장 선정은 노동부에서 과거 재해발생실적과 작업환경측정 결과 등을 토대로 직접 선정하며 사업장에서 신청하는 경우에도 대상 사업장으로 선정, 기술을 지원해 준다.

기술지원방법은 대상 사업장을 분기 1회 이상 한국산업안전공단 및 재해예방단체 전문가가 사업장을 방문하여 현장에서 지도하며, 지원내용은 해당 사업장의 실정에 맞게 전문화·특화하여 지원한다.

기술지원 이외에 5인 미만 사업장에 대해서는 근로자에게 특수건강진단을 무료로 실시하며, 위험기계·기구 및 설비에 대한 무료 검사·수리 서비스도 제공한다.

기술지원 및 무료 특수 건강진단과 기계·기구 검사·수리를 해 주는 기관은 한국산업안전공단을 비롯하여 대한산업안전협회, 대한산업보건협회, 산업안전관리대행협회, 한국산업간호협회, 노동부장관이 지정한 안전관리대행기관과 자체 검사기관이다.

'건강도우미' 운영 사업은 최근 증가하고 있는 직업병 요통, 경견관 증후군 등 작업관련성 질환을 예방하기 위한 사업이다. 근로자의 건강관리가 어려운 사업장의 신청을 받아 퇴직한 간호사, 보건관련 전문가가 사업장을 월 1회 이상 방문하여 근로자와 개별 건강상담을 통하여 현재의 건강상태를 알려주고 건강체조를 지도하며, 올바른 작업자세 등 건강관리기법을 지도한다.

■ 지원 절차

1. 지원을 받기 위한 사업장은 한국산업안전공단 각 지역본부에서 발부하는 신청서를 제출한다.(첨부자료로는 회사약도와 산업재해보상보험 보험료와 임금채권보장 부담금 신고서 사본 등이 있다)
2. 공단에서 현지 실사를 통해 개선 부분을 파악한다.
3. 사업주는 개선계획서를 제출한다.
4. 공단에서 심사해 사업주는 우선 자신이 시설투자하면 공단에서는 시설개선을 확인하고 사업주에게 투자금을 입금한다.(5인 이상 사업장은 공장내 유해위험 사항을 전부 개선하고 5인 미만 사업장은 일부만 개선해도 된다.)

■ 지원금

현지실사를 통해 지원업체로 선정되면 시설투자 1천만원까지는 무료도 지원된다. 1천만원 이상이 될 경우는 1천만원 초과한 분에 대해서는 사업주가 50%를 부담한다. 초과분담금은 연 5%, 3년거치 7년 분할 상환 등 저리 장기융자 혜택도 있다.

신청과 문의는 사업주가 소재한 지역의 한국산업안전공단 각 지역본부이다. 인터넷 www.clean3d.go.kr로도 신청 가능하며 자세한 지원내용을 검색할 수 있다.

김광륜 차장 <kky@print.or.kr>